

대학생의 성폭력 인식 및 의식에 관한 기초조사

김희영¹, 나세희¹, 남경민¹, 남선효¹, 노주희¹, 두송이¹, 문지예¹, 김은희¹, 김진아²
안성아^{1*}

¹한국국제대학교 간호학과, ²한국국제대학교 물리치료학과

A Study on Sexual Violence Consciousness and Cognition of Sexual Violence in University Students

Hui-Yeong Kim¹, Se-Hee Na¹, Kyoung-Min Nam¹, Sun-Hyo Nam¹, Ju-Hee Noh¹,
Song-Ee Doo¹, Ji-Ye Moon¹, Eun-Hee Kim¹, Jin-A Kim², Seong-Ah Ahn^{3*}

¹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²Department of Physical Therapy, International University of Korea

(Received March 10, 2013; Revised April 2, 2013; Accepted March 2, 2013)

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sexual education program by examining status of Sexual Violence Consciousness and Cognition of Sexual Violence of University students

Methods. The subjects were 240 University students located in J-city. Data were collected during the period from Nov. 12, 2012 to Nov. 13, 2012. For the data analysis, SPSS 12.0 K program was utilized to get frequency number, percentage, average, standard deviation and t-test.

Results. The results present different degrees of man and women's cause of sexual violence cognition and consciousness were as following ; The several scores of women higher more than man parts were 'Think of the woman as a sexual target($t=3.86$, $p<0.001$)', 'Men's sexual urges($t=3.98$, $p<0.001$)', 'The low status of women in society ($t=3.85$, $p<0.001$)', 'Male-dominated society and culture($t=5.62$, $p<0.001$)', 'Acceptance of men aggression and activism($t=5.19$, $p<0.001$)', 'Weak punishment ($t=7.25$, $p<0.001$)' and Man higher more than women parts were 'overexposure of women($t=3.88$, $p<0.001$)'.

Conclusion. Results suggest that sexual education program should strategies to increase a positive Consciousness and Cognition of Sexual Violence in their education programs in order to improve Consciousness and Cognition of Sexual Violence in University students.

* Corresponding Author : asa8269@hanmail.net

Key Words : Sexual violence cognition, Sexual violence consciousness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급격한 사회 변화는 성과 관련된 현상과 가치관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서구의 성개방 풍조의 유입, 성의 도구화와 상품화로 인한 저속한 성문화의 범람, 대중매체에서의 노골적인 성적표현 등은 성윤리관의 아노미 현상을 초래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커다란 혼란을 주고 있다¹⁾.

특히 대학생들은 생의 주기로 후기 청소년기 및 성인 초기에 해당하여 신체적으로는 성장이 완료되는 시기이나 아직도 학업에 전념해야 하며, 갈수록 고도화되는 산업화로 교육기간 연장 및 결혼연령이 높아져 사회적, 심리적, 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성인으로서 성행동이 허용되는 시기는 아직 아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오랜 기간 동안 자신의 성적욕구를 억제하도록 요구 당하며 입시위주의 학교교육에 시달리다가 대학에 와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환경에서 폭넓은 대인관계를 경험하면서 성적 인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²⁾.

성폭력은 폭력의 문제에 성이 개입되어 있는 범죄로서³⁾, 이성교제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대학생의 경우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성폭력을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며, 이러한 잘못된 인식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⁴⁾.

한국 성폭력 상담소 5)에서는 전체 성폭력 가해자 중 83%가 주변의 아는 사람이라고 하였으며, 성폭력 상담 횟수가 총 2,273회로 (1,405건), 1995년 상·하반기 상담폭력 상담 횟수가 2,050회(1,238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보고하였다. 성폭력의 가해자를 조사하였을 때 78%가 선배였고

33.3%가 동기였다. 성희롱·성추행을 당한 당시 상황은 술자리가 66.7%로 가장 높았고 Membership Training(M.T.)이나 Orientation Training(O.T.)이 44.6%였으며, 학과·동아리 활동이 15.3%이었고 강의 중이 9.6%였다. 성폭력의 피해는 남녀 대학생의 경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에 있는 3개 종합대학에 재학 중인 여학생 대학생 428명을 대상으로 성경험을 설문조사한 결과⁶⁾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84%가 한 차례 이상의 성적 괴롭힘을 당하였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강제로 키스나 애무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가 15.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동아리나 학과선배(87%)가 가장 많았고, 동료(35.5%), 후배나 교수 또는 조교에 의한 경우도 있었다. 중부지방의 한 종합대학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여학생의 66%가 성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내의 성폭력은 성에 대한 바른 이해와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대학생들은 여러 곳에서 범람하고 있는 성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이면서 성에 대해 그릇되게 이해할 뿐 아니라 성폭력, 이성교제의 문란 등의 복잡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대학생 성관련 연구들에서 대학생의 성지식 수준은 50%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⁷⁾. 반면 대학생의 성교육 요구도는 80%이상으로 높은 연구결과⁸⁾를 보면 대학에서도 성에 대해 수치스럽고 은폐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대학생들이 공개적이고 긍정적인 성의식을 갖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을 건전하게 해소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성에 대한 주체적인 마음가짐을 가질 수 있는 올바른 성의식과 성문화를 대학 내에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⁹⁾.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및 의식을 조사하여 대학생의 특성에 맞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강한 성문화 정착에 기여하고자 한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의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2.1. 언어적 유형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 및 의식을 알아본다.
- 1.2.2. 비언어적 유형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 및 의식을 알아본다.
- 1.2.3. 성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및 의식에 대해 알아본다.
- 1.2.4. 성폭력 근절 대책에 대한 인식 및 의식에 대해 알아본다.
- 1.2.5. 대학생의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의 여부와 성폭력 상담실 이용에 대한 인식 및 의식을 알아본다.

1.3. 용어의 정의

1.3.1. 성폭력 : 개인의 자유로운 성적 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성폭력뿐만 아니라 추행, 성희롱 등 모든 신체적, 언어적,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개념이다⁵⁾.

1.3.2. 성희롱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⁵⁾.

2.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폭력에 대한 인식 및 의식을 확인하고자 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대상

자료 수집 기간은 2012년 11월 12일부터 2012년 11월 13일까지로, 경상남도 J시에 소재하는 대학교에서 남학생 130명, 여학생 130명을 편의표출하였다.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를 허락한 학생에게 동의를 받은 후, 설문지를 배부하고 바로 수거하였으며 총 260부 중 남학생 118명, 여학생 128명 총 240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2.3. 연구도구

본 연구에서는 자기보고방식의 설문지를 활용하였다. 연구도구의 구체적인 설명은 다음과 같다.

2.3.1. 일반적 사항

2.3.1.1. 성별, 나이, 전공학과, 학년, 종교, 성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의 구성으로 6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3.1.2. 이성교제 경험, 이성간의 성적갈등 부분에 대해 4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3.2. 성폭력 당한 경험의 여부

성폭력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여 경험 여부에 대해 질문하여 '있다', '없다'로 답하는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3.3. 언어적 유형의 인식 및 의식

성희롱에 대한 경험유형, 성희롱을 당한다면 대처방식, 성희롱을 했다면 본인이 가장 많이 행한 유형에 관한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3.4. 비언어적 유형의 인식 및 의식

비언어적 성희롱 대처법에 관한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3.5. 성폭력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및 의식

7문항의 4점 척도로 측정하여 조사하였다. 각 항목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별로 그렇지 않다' 2점, '그런 편이다' 3점, '매우 그렇다' 4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항목에 대한 성폭력 발생원인 인식 및 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은 0.73이었다.

2.3.6. 성폭력의 근절 대책에 대한 인식 및 의식

성폭력 근절 대책에 대한 인식 및 의식 조사 부분 5문항의 4점 척도로 측정하여 조사하였다. 각 항목에 대하여 '전혀 효과적이지 않다' 1점,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2점, '효과적인 편이다' 3점, '매우 효과적이다' 4점의 점수를 부여하여 평가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항목에 대한 성폭력 근절대책에 대한 인식 및 의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값은 0.78이었다.

2.3.7.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의 여부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에 대해 질문하는 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3.8. 성폭력 상담실에 대한 의견조사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 교내 성폭력 상담실 존재인식 여부, 성폭력 상담실의 주요 활동영역에 대한 인식의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4.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dows 12.0 K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특성, 성폭력 당한 경험의 여부, 언어적 유형 및

비언어적 유형의 인식 및 의식,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의 여부 및 성폭력 상담실에 대한 의견조사는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으며, 성폭력의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및 의식, 성폭력의 근절 대책에 대한 인식 및 의식에 대한 분석은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및 t 검정을 실시하였다.

3. 연구 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참여자들의 일반적 특성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일반적 특성 중 나이는 남학생은 17~19세가 54.1%로 가장 많았고, 여학생의 나이는 17~19세가 48.3%로 가장 많았다. 남학생의 학년은 1학년이 61.9%로 가장 많았고, 여학생은 1학년이 48.4%로 가장 많았다. 남학생의 종교는 무교가 60.2%, '종교 있음'이 39.8%였으며, 여학생은 무교가 51.6%, '종교 있음'이 48.4%로 나타났다. 남학생의 성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는 보통이 57.6%로 가장 많았고, 여학생의 성에 대한 부모님의 태도는 보수적이 50%로 가장 많았다. 이성교제 경험 유무로는 남학생은 '과거에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가 39.8%로 가장 많았으며, 여학생도 '과거에 있었으나, 현재는 없다'가 40.2%로 가장 많았다. 남학생의 성적갈등 경험은 '성적 접촉 정도의 차이가 있을 때' 42.4%로 가장 높았고, 여학생도 또한 '성적 접촉 정도의 차이가 있을 때'가 36.9%로 가장 높았다. 성에 대한 의견 차이를 느낄 때 남학생은 '대화를 통해 합의를 구한다'가 65.3%로 가장 높았고, 여학생도 '대화를 통해 합의를 구한다'가 55.7%로 가장 높았다. 남학생의 성적인강요 경험 유무는 '없음'이 87.3%, '있음'이 12.7%로 조사되었고, 여학생의 성적인강요 경험 유무는 '없음'이 88.5%, '있음'이 11.5%로 대부분의 남녀 대학생들은 성적인강요를 받은 적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tudents participating

(N=240)

Characteristics	Category	Male Student (n=118) (%)	Female Student (n=122) (%)	Total (n=240) (%)
Age	17~19	64(54.1)	59(48.3)	123(51.3)
	20-22	31(26.4)	61(50.1)	92(38.2)
	Above23	23(19.5)	2(1.6)	25(10.5)
Grade	1	73(61.9)	59(48.4)	132(55.0)
	2	13(11.0)	18(14.8)	31(12.9)
	3	27(22.9)	45(36.9)	18(30.0)
	4	5(4.2)	0(0.0)	5(2.1)
Religion	Yes	47(39.8)	59(48.4)	79(44.2)
	No	71(60.2)	36(51.6)	134(55.8)
Parent's Attitude on Sex	Conservative	23(19.5)	61(50.0)	84(35.0)
	Neutral	68(57.6)	50(41.0)	118(49.2)
	Open Minded	27(22.9)	11(9.0)	38(15.8)
Experiences of romantic Relationship	N/A	32(27.1)	33(27.0)	65(27.1)
	In a relationship	39(33.1)	40(32.8)	79(32.9)
	Not currently	47(39.8)	49(40.2)	96(40.0)
Experience of Sexual Conflict	Needs in sexual behavior	28(23.7)	30(24.6)	58(24.2)
	Degree of differences in Sexual contact	50(42.4)	45(36.9)	95(39.6)
	Femaleness(maleness) emphasized	26(22)	39(32.0)	65(27.3)
	Lack of sexual knowledge	14(11.9)	8(6.6)	22(9.2)
When you notice differences of opinion about sexuality	Agreement through dialogue	77(65.3)	68(55.7)	145(60.4)
	Until the other party comment	26(22.0)	2(1.6)	28(11.7)
	my decisions action	5(4.2)	21(17.2)	26(10.8)
	My opinion persuasion	10(8.5)	31(25.4)	41(17.1)
Experience in sexual extortion	Yes	15(12.7)	14(11.5)	29(12.1)
	No	103(87.3)	108(88.5)	211(87.9)

3.2. 성폭력을 당한 경험의 유무

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성폭력을 당한 경험의 유무 검정 결과는<Table 2>와 같다. 남

학생의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는 2.5%이고, 여학생은 5.7%였다. 남학생의 '성폭력을 당한 경험이 없다'는 97.5%이고, 여학생은 94.3%였다.

Table 2. Experience in Sexual Violence

(N=240)

Category	Male Student (n=118) (%)	Female Student (n=122) (%)	Total (n=240) (%)
Have experienced sexual Violence	3(2.5)	7(5.7)	10(4.2)
Have not experienced sexual Violence	115(97.5)	115(94.3)	230(95.8)

3.3. 언어적 유형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 및 의식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언어적 유형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 및 의식에 대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성희롱에 대한 경험 유형에서 남학생은 '신체나 외모에 대한 모욕, 조롱'이 38.1%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여학생의 경우 '신체나 외모에 대한 모욕'이 41.8%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다. 성희롱을 당한다면 대처방식

은 남학생은 '웃거나 농담으로 받아들이기' 39.8%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간접적인 의사표시'가 41%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다.

성희롱을 했다면 가장 많이 행한 유형에서는 남학생은 '단 한 번도 언어적 유형의 성희롱 행하지 않음'이 48.3%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단 한 번도 언어적 유형의 성희롱 행하지 않음'이 43.4%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다.

Table 3. Cognition of Verbal Sexual Harassment

		(N=240)		
Characteristics	Category	Male Student (n=118) Frequencies (%)	Female Student (n=122) Frequencies (%)	Total (n=240) Frequencies(%)
Experience in Sexual Harassment	Ridicule remarks in public	31(26.5)	31(25.4)	62(25.8)
	Body or appearance insult	45(38.1)	51(41.8)	96(40.0)
	Stress on femaleness(maleness)	22(18.6)	30(24.6)	52(21.7)
	Alienation or offensive obscenities	20(16.9)	10(8.2)	30(12.5)
Ways of Coping with Sexual Harassment	Ignore	10(8.5)	1(0.8)	11(4.6)
	Cannot express in words or actions	3(2.5)	5(4.1)	8(3.3)
	Laugh it off	47(39.8)	37(30.3)	84(35.0)
	Indirect expression	26(22.0)	50(41.0)	76(31.7)
	Clear expression and ask to stop	29(24.6)	28(23.0)	57(23.8)
	Ask others for help	0(0.0)	0(0.0)	0(0.0)
	Report to a counselor	1(0.8)	0(0.0)	1(0.4)
	Does not deal with it	2(1.7)	0(0.0)	2(0.8)
Different types of Sexual Harassment you have done	Ridicule remarks in public	13(11.0)	10(8.2)	23(9.6)
	Body or appearance insult	30(25.4)	38(31.1)	68(28.3)
	Stress on femaleness (maleness)	11(9.3)	16(13.1)	27(11.3)
	Alienation or offensive obscenities	7(5.9)	4(3.3)	11(4.6)
	Have not done any verbal sexual harassment	57(48.3)	53(43.4)	110(45.8)

3.4. 비언어적 유형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 및 의식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비언어적 유형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 및 의식에 대한 조사로 비언어적 유형의 성희롱에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성희롱의 대처법에서 남학생은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가 39.8%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불쾌하다는 간접적인 의사표시(얼굴 표정)를 한다'가 41%를 차지하여 가장 높았다.

Table 4. Dealing with non-verbal sexual harrassment

		(N=240)		
Characteristics	Category	Male Student (n=118) Frequencies (%)	Female Student (n=122) Frequencies (%)	Total (n=240) Frequencies(%)
Dealing with Sexual Harassment	Ignore	7(5.9)	1(0.8)	8(3.3)
	No words or actions taken	2(1.7)	5(4.1)	7(2.9)
	Just laugh it off	33(28.0)	9(7.4)	42(17.5)
	Indirect expression in to show offense	22(18.6)	50(41.0)	72(30.0)
	Clear expression and ask to stop	47(39.8)	46(37.7)	93(38.8)
	Ask for hep	3(2.5)	3(2.5)	6(2.5)
	Report to a counselor	2(1.7)	6(4.9)	8(3.3)
	Does not deal with it	2(1.7)	4(0.8)	3(1.3)

3.5. 성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및 의식

성폭력 발생원인 인식 및 의식에 대한 평균 점수로 보면,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에 대해 남학생은 2.50±0.94점, 여학생은 2.90±0.65점으로(t= 3.86, p<0.001), '남성의 성적 충동'에 대해 남학생은 2.68±0.89점, 여학생은 3.09±0.68점(t= 3.98, p<0.001), '여성의 과다노출'에 대해 남학생은 2.45±0.80 점, 여학생은 2.06±0.76점(t=3.88, p<0.001). '사회 내 여성의 낮은 지위'에 대해 남학생은 1.58±0.68점, 여학생은 1.94±0.75점(t=3.85,

p<0.001). 남성 중심적인 사회문화'에서는 남학생이 1.74±0.72점, 여학생은 2.30±0.81점 (t=5.62, p<0.001), '남성의 적극성, 공격성의 수용'에 대해 남학생이 2.05±0.73점, 여학생은 2.58±0.85점(t= 5.19, p<0.001), '처벌이 미약함'에 대해 남학생이 3.01±1.02점, 여학생은 3.74±0.44점(t=7.25, p<0.001)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성폭력 발생 원인에 대한 인식 및 의식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 '처벌이 미약함'에서 3.01±1.02점, 3.74±0.4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p<0.001)<Table5>.

Table 5. Gender Differences in Sexual Violence cognition of the cause and consciousness (N=240)

Characteristics	Category	Male Student (n=118)	Female Student (n=122)	Total (n=240)	
		Mean±SD	Mean±SD	Mean±SD	t
Recognizing the cause of Sexual Violence	Think of the woman as a sexual target	2.50±0.94	2.90±0.65	2.70±0.83	3.86 (p<.001)
	Men's sexual urges	2.68±0.89	3.09±0.68	2.88±0.81	3.98 (p<.001)
	Overexposure of women	2.45±0.80	2.06±0.76	2.25±0.81	3.88 (p<.001)
	The low status of women in society	1.58±0.68	1.94±0.75	1.77±0.74	3.85 (p<.001)
	Male-dominated society and culture	1.74±0.72	2.30±0.81	2.02±0.82	5.62 (p<.001)
	Acceptance of men aggression and activism	2.05±0.73	2.58±0.85	2.32±0.83	5.19 (p<.001)
	Weak punishment	3.01±1.02	3.74±0.44	3.38±0.86	7.25 (p<.001)

3.6. 성폭력 근절 대책에 대한 인식 및 의식

대학생의 성별에 따른 성폭력 근절 대책에 대한 인식 및 의식에 대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사회문화'에 대해 남학생은 2.79±0.88점, 여학생은 2.86±0.75점, '사회에서의 남녀차별금지'에 대해 남학생은 2.42±0.82점, 여학생은 2.38±0.67점, '성폭력예방교육'에 대해 남학생은 2.39±0.88점, 여학생은 2.62±0.74점, '성폭력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기구운영'에 대해 남학생은 2.53±0.81점, 여학생은 2.63±0.74점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성폭력에 대한 법적인 처벌'

에 대해 남학생은 2.73±1.01점, 여학생은 2.86±1.12점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성폭력 근절 대책에서 남학생은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사회문화'가 2.79±0.8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여학생은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사회문화'가 2.86±0.75, '성폭력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2.86±1.12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성별에 따른 성폭력 근절 대책에 대한 인식 및 의식에서는 전체적으로 남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모든 범주에서 남녀 모두 평균 점수 이상을 보였다.

Table 6. The sexual violence eradication cognition and consciousness

(N=240)

Characteristics	Category	Male Student (n=118) Mean ±SD	Female Student (n=122) Mean ±SD	Total (n=240)	
				Mean±SD	t
cognition and consciousness about sexual violence eradication	To respect each other personally and socio cultural	2.79±0.88	2.86±0.75	2.83±0.82	1.81 (0.07)
	Prohibit gender discrimination in society	2.42±0.82	2.38±0.67	2.40±0.75	1.00 (0.32)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2.39±0.88	2.62±0.74	2.51±0.82	1.93 (0.06)
	Operate the sexual violence problem in organizations	2.53±0.81	2.63±0.74	2.58±0.78	0.22 (0.82)
	Legal consequences on Sexual violence	2.73±1.01	2.86±1.12	2.80±1.07	1.35 (0.18)

3.7. 대학생의 성폭력 예방교육 경험의 여부와 성폭력 상담실 이용에 대한 인식 및 의식연구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 유무에서 남학생은 '있음'이 86.4%, '없음'이 13.6%로 나왔고 여학생은 '있음'이 91%, '없음'이 9%로 대부분의 남녀 대학생들이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적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폭력 규정 및 상담실 존재를 알고 있는가'라는 문항에서 남학생은 '알고 있음'이 71.2%, '모르고 있음'이 28.8% 이었고, 여학생은

'알고 있음'이 78.7%, '모르고 있음'이 21.3%로 절반 이상의 남녀 대학생들이 성폭력 규정 및 상담실 존재를 알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그리고 '성폭력 상담실을 이용할 의사가 있는가'라는 질문에서 남학생은 '있음'이 26.3%, '없음'이 73.7%로 조사되어 절반 이상의 많은 학생들이 성폭력 상담실을 이용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여학생은 '있음'이 45.9%, '없음'이 54.1%로 확실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상담실의 주요 활동 영역은 무엇이라 생각 하는가 에 대한 질문에서 남학생은

‘성폭력 예방 교육’이 44.9%로 가장 높았고, 62.3%로 가장 높았다. 여학생은 ‘성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상담’이

Table 7. The use of sexual violence counseling center cognition and consciousness (N=240)

Characteristic	Category	Male Student (n=118) Frequencies (%)	Female Student (n=122) Frequencies (%)	Total (n=240) Frequencies (%)
Experience of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Yes	102(86.4)	111(91.0)	213(88.8)
	No	16(13.6)	11(9.0)	27(11.3)
Knowledge on the sexual violence provisions and counseling	Yes	84(71.2)	96(78.7)	180(75.0)
	No	34(28.8)	26(21.3)	60(25.0)
Plan on using sexual violence counseling center	Yes	31(26.3)	56(45.9)	87(36.3)
	No	87(73.7)	66(54.1)	153(63.8)
What do you think is the main activity in sexual violence counseling center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53(44.9)	32(26.2)	85(35.4)
	Truth of sexual violence	3(2.5)	1(0.8)	4(1.7)
	Counseling Sexual violence perpetrators and victims	52(44.1)	76(62.3)	128(53.3)

4. 논 의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 및 의식을 조사해 봄으로써 남학생과 여학생 대학생의 특성에 맞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되었다.

언어적 유형의 성희롱에서는 남학생이 ‘신체의 외모에 대한 모욕, 조롱’이 가장 높게 나왔고, 여학생 또한 ‘신체의 외모에 대한 모욕, 조롱’이 가장 높아 전체적으로 이 항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Park 10)의 연구에서는 남학생은 ‘남성다움의 강조’가 가장 높게 나왔고, 여학생 또한 ‘여성다움의 강조’가 가장 높게 나와서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자신들의 신체나 외모에 대한 모욕이나 조롱의 언어적 성희롱을 가장 많이 경험했음을 확인하였다.

성별에 따른 비언어적 유형의 성희롱대처법에서 남학생은 웃거나 농담으로 받아들

임’, 여학생은 ‘간접적인 의사 표시’가 가장 높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Park 10)의 연구에서 남학생은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행동을 중재할 것을 요구한다’, 여학생은 ‘불쾌해 하는 간접적인 의사표시를 한다’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본인이 가장 많이 행한 언어적 유형의 성희롱을 볼 때 본 연구에서 남학생은 ‘단 한 번도 언어적 성희롱을 행하지 않았다’, 여학생은 ‘신체나 외모에 대한 모욕, 조롱’과 ‘단 한 번도 언어적 성희롱을 행하지 않았다’가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자신이 언어적 유형의 성폭력을 당했다는 것은 인식 하지만, 자신은 언어적 유형의 성폭력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볼 때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자신이 언어적 성희롱을 행한 것을 회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성에 대한 인식 및 의식은 건강한 대학생이 알아야 하는 성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으로 성기관의 구조와 기능, 심리적 발달과 특성, 성과 관련된 건강, 성행위, 임신

및 출산, 피임방법, 그리고 성에 대한 인식 및 의식의 정보와 경로 등 총괄한 개념뿐 아니라 대학생들에게 남자와 여자의 성적 특성과 역할을 이해시켜 존경과 신뢰로 협력하는 건강한 인간관계를 형성, 유지하도록 성에 대한 건전한 시각과 의식, 사고와 감정 및 태도 등을 함양시키는 성교육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¹¹⁾¹²⁾¹³⁾.

비언어적 유형의 성희롱을 당했을 때 가장 많이 행한 대처법으로 남학생은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이고, 여학생은 '불쾌하다는 간접적인 의사표시를 한다'로 나타났다. 비언어적 유형의 성희롱 대처법으로 남학생은 언어적 유형의 성폭력에 비해 더 적극적으로 싫다는 의사를 밝히지만, 여학생은 언어적 성폭력 대처법과 같이 간접적인 의사 표시만 함으로 소극적인 면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Kim 14)의 연구에서 성개방과 성평등에 있어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에 비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한 결과와 일치한다. 하지만 비언어적 유형의 성희롱을 당했을 때 가장 많이 행한 대처법으로 남녀 모두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보고한 Park 10)의 연구결과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성폭력 원인에 대한 인식 및 의식은 남학생이 '처벌이 미약하다'가 가장 높게 나왔고, 여학생 또한 '처벌이 미약하다'가 가장 높게 나왔으나 Park 10)의 연구에서는 성폭력 원인에 대한 인식 및 의식으로 남학생은 '남성의 성적 충동 때문', 여학생은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이 가장 높게 나왔다. 본 연구에서 성별에 따른 성폭력 원인에 대한 인식 및 의식에서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 '남성의 성적 충동', '사회내 여성의 낮은 지위', '남성 중심적인 사회문화', '남성의 적극성, 공격성의 수용', '처벌의 미약'부분에서 유의하게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과다 노출'에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대부분의 대학생들이 성희롱, 성범죄에 대해 잘못된 통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성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 보다 결혼 전 성경험을 한 사람이 많다고 보고한 연구결과¹⁵⁾¹⁶⁾, 우리사회의 성에 대한 높은 보수적인 태도를 가진 남학생이 성폭력 통념과 분노 성폭력의 가해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결과¹⁷⁾, 그리고 성폭력과 상관관계가 있는 요인으로 성별, 개인의 통제력, 허용적인 태도에 있다고 보고한 결과¹⁸⁾를 볼 때 대학내에서 다각적인 측면에서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별화된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폭력 근절대책으로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은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사회문화', 여학생은 성폭력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가장 효과적으로 생각한다고 하였으나 선행연구¹⁰⁾에서는 성폭력 근절 대책으로 남녀 모두 '성폭력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제시한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2013년 6월 19일 시행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는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고, 장애인과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강간죄의 객체를 '여자'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등 성폭력범죄를 강화하고 있다¹⁹⁾. Ha 20)의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대학생이 성희롱 피해를 경험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과 달리 실제 성희롱 피해상황에서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학생들은 과거에 비해 성에 대한 인식이나 태도가 개방적인 만큼 성교육을 통한 건전한 삶을 위한 성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생의 개인적인 성에 대한 생각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성의식을 공유하면서 자신의 성지식을 점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J시에 소재하는 남학생 대학생 118명과 여학생 대학생 122명으로 총 240명이었으며, 자료 수집 기간은 2012년 11월 12일부터 11월 13일까지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 12.0 K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 검정으로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적 유형의 성희롱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남녀 모두 '신체나 외모에 대한 모욕, 조롱'이 가장 높았으며, 성희롱을 당한다면 대처방식에서는 남학생은 '웃거나 농담으로 받아들이기', 여학생은 간접적인 의사표시가 가장 높았다. 성희롱을 했다면 본인이 가장 많이 행한 유형은 남, 여학생 모두 '단 한 번도 언어적 유형의 성희롱 행하지 않음' 이 가장 높았다.

셋째, 비언어적 유형의 성희롱 대처법에서 남학생은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히고 행동을 중지할 것을 요구한다'가 가장 높았고, 여학생은 '불쾌하다는 간접적인 의사표시(얼굴표정)를 한다'가 가장 높았다.

넷째, 성별에 따른 성폭력 원인에 대한 인식 및 의식에서는 '남성의 성적 충동'(t=3.98, p<0.001), '남성 중심적인 사회문화'(t=5.62, p<0.001), '남성의 적극적, 공격성의 수용'(t=5.19, p<0.001) 및 '처벌이 미약'(t=7.25, p<0.001),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생각'(t=3.86, p<0.001)에서 여학생이 남학생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과다 노출'(t=3.88, p<0.001)에서는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다섯째, 성별에 따른 성폭력 근절 대책에 대한 인식 및 의식에서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높았던 영역은 '서로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는 사회문화', '성폭력예방교육', '성폭력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기구운영', '성폭력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 있었고,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점수가 높았던 영역은 '사회에서의 남녀차별금지'였으나 범주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여섯째,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은 경험에서 남녀 모두 '있음'이 월등히 높았고, 성폭력 규정 및 상담실 존재에 대해 남녀 모두 '알고 있음'이 가장 높았으며, 성폭력 상담실을 이용할 의사에 대한 특성에서는 남녀 모두 '없음'이 가장 높았다. '성폭력 상담실의 주요 활동 영역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에서 남학생은 '성폭력 예방교육', '성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상담' 이 동등한 점수로 가장 높았으며, 여학생은 '성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 상담'이 가장 높았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한다. 첫째, 본 연구는 J시에 소재한 일반대학생을 대상을 편의 표출한 연구 이므로 연구결과이므로 전체 일반 대학생에게 결과를 적용함에 있어서 신중을 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위하여 대학생의 성의식 및 성지식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모집단을 대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대학생의 경우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인정받아야 할 시기이지만 성인식 및 의식을 인지할 수 있는 정보의 바탕이 부족하므로 다양한 매체를 통한 폭넓은 성교육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대학 내 건전한 성문화의 정착과 사회문제로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성교육프로그램을 권장하고 확대하길 바란다.

References

1. Park CG. High school teachers' understanding of sex education and analysis of its current situ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nnam National University, 2002.
2. Jean GS, Lee HY, Rhee SJ. Sexual Knowledge, Attitudes and Behaviors of Korea College Students and Effects of Sexual Education on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2004;21(1):45-68.

3. Nam MJ. A Study on Rape Myths Acceptance by Sex Role Identity Type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4;257-258.
4. Koh HR. (An) Analysis of rape case perception difference: with special to sex-role stereotype, rape myths effects, *Cross-Cultural Psychology Major department of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Chung-Ang University* 2007.
5. <http://www.sister.or.kr/2006>.
6. <http://www.hani.co.kr/2000>.
7. Kim GS. Development of Sexuality Education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on the Basis of Sexual Awareness. *Journal of Family Relations*, 2001;6(1), 181-201.
8. Lee IS, Jeon MY, Kim YH, et al. Knowledge in Sex and Needs of Sex Education among Community College Students, *J. Korea Community Health Nursing Academic Society*, 2000;4(2): 382-395.
9. Kim BS. A Study on Actual Conditions of the Sexual Experience and Sexual Consciousness of college students. *Korea College of Media Arts*, 2000;7: 111-124.
10. Park HS. A Study on Sexual Violence Consciousness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Student Living Guidance*, 2002;15:111-176.
11. Woo NS, Ka YH. A Study on the of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Sexual Behavior in Kore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5;10:113-133.
12. Lee HY. Comparative Analysis of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Sexual Behavior and Sex Education of Korean. Chinese and Japanese Students in Adolescence,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2001.
13. Cho K. H. The Relationships between Sex knowledge and Sex Attitude of Adolescents.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Graduate School, Kong Ju National University*, 2005.
14. Kim HW. The Relationships Among Sexual Knowledge, Attitudes, behaviors of Male and Female High Schoo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3; 15(2):309-328.
15. Patricia MC, John DL. Self-Image and Premarital Sexualit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979;9(41):327-340.
16. Kim HK, Heo EJ.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sychological Maturity Variables and Sexual Attitude in University Studen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003;10(4):403-422.
17. Jeong ES. The Relationships of sex-Attitude and Rage to Sexual Violence in Adolescents,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2008.
18. Chang HS. Cho HG. The Prevalence and Risk Factors of Dating Viol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2001;179-204.
19. <http://www.lawnb.com> 2013.
20. Ha HS. Sexual Harassment Coping Style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007;19(3):785-800.